

이름: \_\_\_\_\_ ( )학년 ( )반 ( )번

날짜: \_\_\_\_\_ 년 월 일 ~ 월 일

【본문 학습】

성어	<b>博學審問</b> 박학심문	博 넓다 學 배우다 審 자세하다 問 묻다
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博學 : 배운 것이 많고 학식이 넓음.</li><li>▶ 널리 배우고 자세하게 물음.(→ 학문을 하는 자세.)</li></ul>	
성어	<b>螢雪之功</b> 형설지공	螢 반딧불 雪 눈 之 ~하는(한) 功 공덕
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之: ~의</li><li>▶</li></ul>	
성어	<b>風樹之歎</b> 풍수지탄	風 바람 樹 나무 之 ~하는(한) 歎 탄식하다
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之: ~의</li><li>▶</li></ul>	
성어	<b>韋編三絕</b> 위편삼절	韋 가죽 끈 編 책 三 석(셋) 絕 끊어지다
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韋編: 책을 끊어 매는 가죽 끈</li><li>▶</li></ul>	
성어	<b>手不釋卷</b> 수불석권	手 손 不 아니다 釋 놓다 卷 책
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釋卷 : 책을 놓다.</li><li>▶</li></ul>	
문장	<b>謂學不暇者</b> <sup>5</sup> 는 <b>雖暇</b> <sup>라도</sup> <b>亦不能學矣</b> <sup>라.</sup> 위학불가자 는 수가 역불능학의	暇 겨를 者 사람 雖 비록 亦 또한 能 능하다 矣 어조사
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謂: 말하다. • 雖: 비록 ~일지라도 • 矣: ~(할) 것이다. ~이다.</li><li>▶</li></ul>	

문장	勿 <sup>10</sup> 謂 <sup>9</sup> 今 <sup>1</sup> 日 <sup>2</sup> 不 <sup>4</sup> 學 <sup>3</sup> 而 <sup>5</sup> 有 <sup>8</sup> 來 <sup>6</sup> 日 <sup>7</sup> 하고, 물 위 금 일 블 학 이 유 내 일	勿 말다 謂 말하다 今 지금 不 아니다 學 배우다 而 말 있다
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勿: ~하지 말라 而: 그리고</li> <li>• 今日: 오늘</li> <li>▶</li> </ul>	
문장	勿謂今年不學而有來年하라. 물 위 금 년 블 학 이 유 내 년	
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勿: ~하지 말라 而: 그리고</li> <li>• 今年: 올해</li> <li>▶</li> </ul>	年: 해
문장	讀書에 必整襟肅容하고, 專心易氣하며, 독서에 필정금속용 전심이기	整 가지런하다 襟 옷깃 肅 엄숙하다 容 얼굴, 용모 專 오로지 易 평안하다 氣 기운
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整襟: 옷깃을 여미어 모양을 단정(端正)히 함.</li> <li>• 易 : 평안하다.</li> <li>• 易氣: 격한 마음을 누그려 뜨려 기색(氣色)을 즐겁고 편안하게 함.</li> <li>▶</li> </ul>	
문장	母生雜念하고, 母主先入하라. 무생잡념 무주선입	母 말다 生 생기다 雜 섞이다 念 생각 母 말다 主 주인
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勿: ~하지 말라</li> <li>• 先入: 미리 마음속에 형성된 고정적인 관념이나 견해(선입견)</li> <li>▶</li> </ul>	

\* 배움의 태도를 담고 있는 성어와 문장을 통해 학문하는 바람직한 자세에 대해 성찰하는 계기가 되었다

\* 자신의 학습 태도에 대한 성찰의 글이나 격려의 글을 써 봅시다.

\* 학습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나 느낌은?

\* 학습을 통해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 【어휘 학습】

### (가)

曆書 역서 ·	• 문서나 책 따위를 얹어 두거나 꽂아 두도록 만든 선반.
文書 문서 ·	• 글이나 기호 따위로 일정한 의사나 관념 또는 사상을 나타낸 것.
書架 서가 ·	• 일 년 동안의 월일, 해와 달의 운행, 월식과 일식, 절기, 특별한 기상 변동 따위를 날의 순서에 따라 적은 책.
黨籍 당적 ·	• 귀중한 법전.
符籍 부적 ·	• 국가가 제정한 통일적·체계적인 성문 법규집.
樂譜 악보 ·	•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혈통과 집안의 역사를 적은 책.
系譜 계보 ·	• 당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문서.
寶典 보전 ·	• 음악의 곡조를 일정한 기호를 써서 기록한 것.
法典 법전 ·	• 잡귀를 쫓고 재앙을 물리치기 위하여 붉은색으로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려 몸에 지니거나 집에 붙이는 종이.

### (나)

原稿 원고 ·	• 원고 쓰기를 마침.
草稿 초고 ·	• 남의 문장 또는 출판물의 잘못된 글자나 글귀 따위를 바르게 고침.
脫稿 탈고 ·	• 인쇄하거나 발표하기 위하여 쓴 글이나 그림 따위.
校訂 교정 ·	• 글이나 사진 따위를 잉크를 사용하여 종, 천 등의 면에 옮겨 찍어서 박아 냄
製版 제판 ·	• 인쇄판을 만드는 일.
印刷 인쇄 ·	• 초벌로 쓴 원고.
製冊 제책 ·	• 낱장으로 되어 있는 원고나 화고(畫稿), 인쇄물, 백지 따위를 차례에 따라 실이나 철사로 매고 표지를 붙여 한 권의 책으로 꾸미는 일.

### (다)

多讀 다독 ·	• 소리를 내어 읽음.
精讀 정독 ·	• 소리 내지 않고 속으로 읽음.
熟讀 숙독 ·	• 글을 익숙하게 잘 읽음.
誦讀 송독 ·	• 많이 읽음.
默讀 묵독 ·	• 뜻을 새겨 가며 자세히 읽음.

### (라)

趣味 취미 ·	•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기기 위하여 하는 일.
興味 흥미 ·	• 흥을 느끼는 재미.
讀書 독서 ·	• 책을 읽음.
寫眞 사진 ·	• 물체의 형상을 감광막 위에 나타나도록 찍어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게 만든 영상.
漫畫 만화 ·	• 이야기 따위를 간결하고 익살스럽게 그린 그림.
樂器 악기 ·	• 음악을 연주하는 데 쓰는 기구를 통틀어 이르는 말.
演奏 연주 ·	• 악기를 다루어 곡을 표현하거나 들려주는 일.
映畫 영화 ·	• 일정한 의미를 갖고 움직이는 대상을 촬영하여 영사기로 영사막에 재현하는 종합 예술.
鑑賞 감상 ·	• 주로 예술 작품을 이해하여 즐기고 평가함.
作詞 작사 ·	• 노랫말을 지음.
作曲 작곡 ·	• 음악 작품을 창작하는 일. 또는 시(詩)나 가사에 가락을 붙이는 일.

\* 위 활동을 자신의 취미와 흥미의 정도에 따라 나열해 봅시다.

## 【꼭 알아 둡시다】

### ■ 명령문

화자가 청자에게 어떤 행동을 하도록 요구하거나 요청하는 문장이다. (예) 毋: ~하지 말라.

### ■ 위편삼절(韋編三絕)

위편(韋編)은 가죽으로 맨 책 끈을 말하는데, 그 가죽 끈이 세 번이나 닳아 끊어졌다는 뜻이다. 이것은 《사기(史記)》 <공자세가(孔子世家)>에 “孔子晚而喜易 讀易…韋編三絕(공자가 늦게 역을 좋아하여 역을 읽어…가죽 끈이 세 번 끊어졌다.)”이라고 한 대서 비롯된 말로서 공자 같은 성인도 학문 연구를 위해서는 피나는 노력을 한다는 비유이다. 또한, 후인들의 학문에 대한 열의와 노력을 나타내는 말로도 인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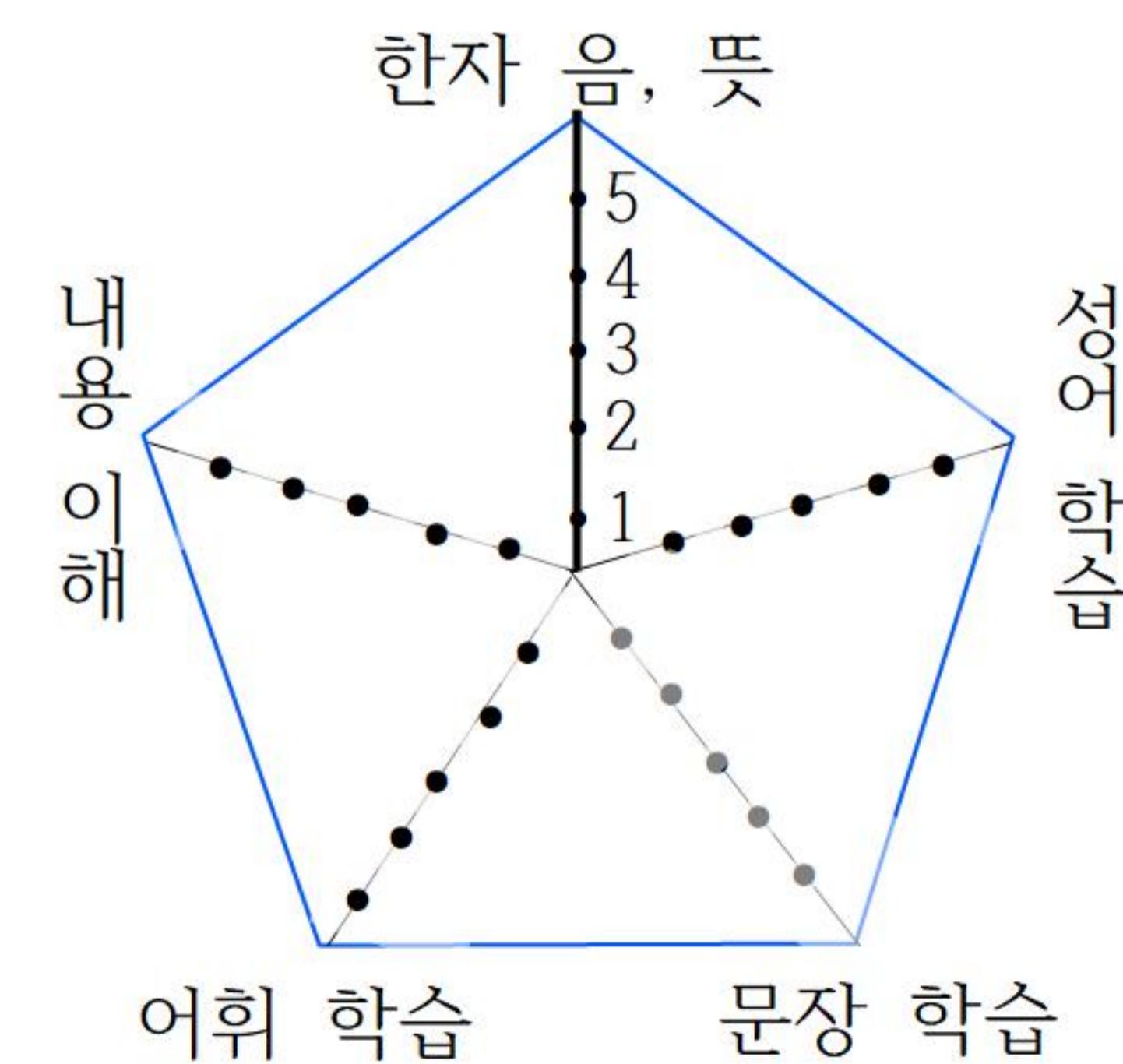
### ■ 형설지공(螢雪之功) 더 알아보기

- **비슷한 성어:** 주경야독(晝耕夜讀: 曰 夜 주, 耕 밭갈 경, 夜 밤 야, 讀 읽을 독) 낮에는 밭을 갈고 밤에는 책을 읽는다. 즉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꾸꿋하게 공부하는 것을 이르는 말.
- **뜻이 비슷한 속담:** 공든 탑이 무너지랴. 정성을 다해 쌓은 탑은 무너질 리가 없음. 즉 뜻을 다해 노력하면 그 결과가 헛되지 않고 보람이 있다는 뜻.

### ■ 수불석권(手不釋卷) 더 알아보기

어느 날 손권(孫權)이 여몽(呂蒙)과 장흠(蔣欽)에게 말했다. “경들은 이제 권한을 가지고 국가 대사를 맡게 되었으니 공부를 해서 지식을 함양해 두는 것이 어떻겠소?” 여몽이 대꾸했다. “군 안에 항상 일이 많아 책을 읽을 겨를이 없습니다.” “내가 경에게 경학을 공부하여 박사(博士)라도 되라고 하는 줄 아는 모양이구려. 다만 지난 일들(선인들이 남긴 기록)을 섭렵하라는 것이오. 경이 할 일이 많다고는 하지만 나보다 많기야 하겠소? 나는 어릴 적에 《시경》, 《서경》, 《예기》, 《좌전(左傳)》, 《국어(國語)》를 읽었고 《주역》만을 읽지 못했다오. 업무를 통솔한 아래 역사서와 모든 병서를 살펴보았는데 스스로 생각해도 큰 이익이 되는 것 같소. 두 분 경들은 성정이 총명하고 이해력이 있어 공부하면 반드시 얻게 될 것인데 어찌 하려고 하지 않는 거요? 당장 《손자(孫子)》, 《육도(六韜)》, 《좌전》, 《국어》와 삼사를 읽어야 할 것이오. 일찍이 공자(孔子)께서도 ‘하루 종일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생각만 했는데 얻은 것이 없었다. 차라리 책을 읽는 편이 낫다.’고 말씀하셨소. 그리고 후한(後漢)의 광무제(光武帝)는 군무에 바쁜 중에도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다고 하고, 맹덕(孟德, 조조(曹操)) 역시 늙어서까지도 배우기를 좋아했다고 스스로 말했소. 경들은 어찌하여 스스로 노력하지 않는단 말이오.” 여몽은 공부를 시작하여 뜻을 돈독히 하고 게으르지 않아 두루 본 책이 옛 유학자들보다도 많았다.

### ※ 나의 학습 성취도 체크하기



## 12. 겸손의 미덕

이름: \_\_\_\_\_ ( )학년 ( )반 ( )번

날짜: \_\_\_\_\_ 년 월 일 ~ 월 일

### 【본문 학습】

성어	<b>桂林一枝</b> 계림 일지	桂 계수나무 林 숲 一 하나 枝 가지
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桂林 : 계수나무 숲</li> <li>▶ 계수나무 숲의 한 가지. (→ 사람됨이 비범하면서도 겸손함. 또는 대수롭지 않은 출세.)</li> </ul>	
성어	<b>外柔内剛</b> 외유내강	外 바깥 柔 부드럽다 内 안 剛 굳셀
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外柔: 겉으로 보기에는 부드러움</li> <li>▶</li> </ul>	
성어	<b>辭讓之心</b> 사양지심	辭 말 讓 사양하다 之 ~하는(한) 心 마음
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단(四端) : 사람의 본성에서 우러나오는 네 가지 마음씨. • 之: ~하는</li> <li>* 四端: 憐隱之心, 羞惡之心, 辭讓之心, 是非之心</li> <li>▶</li> </ul>	
성어	<b>禮義廉恥</b> 예의廉恥	禮 예절 義 의롭다 廉 청렴하다 恥 부끄럽다
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廉恥: 남에게 신세(身世)를 지거나 폐를 끼치거나 할 때 부끄럽고 미안한 마음을 가지는 상태(狀態)</li> <li>▶</li> </ul>	
문장	<b>滿招損謙受益</b> 만초손 이요 겸수익	滿 가득 차다 招 부르다 損 덜다. 손해 謙 겸손하다 受 받다 益 이익
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謙: 겸손하다. 滿: 가득 차다. 교만하다</li> <li>▶</li> </ul>	

문장	欲 <sup>3</sup> 勝 <sup>2</sup> 人 <sup>1</sup> 者 <sup>4</sup> 는 必 <sup>5</sup> 先 <sup>6</sup> 自 <sup>7</sup> 勝 <sup>8</sup> 하고	欲 하고자하다 勝 이기다 人 사람 者 사람 必 반드시 先 먼저 自 스스로
풀이	• 欲: ~하고자 하다. • 必: 반드시 ~하다. • 人: 남(타인) • 者: ~ 하는 사람 ▶	
문장	欲論人者는 必先自論이니라.	欲 하고자하다 論 논하다. 따지다 人 사람 者 사람 必 반드시 先 먼저 自 스스로
풀이	• 欲: ~하고자 하다. 必: 반드시 ~하다. 人: 남(타인) ▶	
문장	太山은 不讓土壤이라. 故로 能成其大이요,	太 크다 讓 사양하다 壤 흙 故 연고, 까닭 能 능하다 成 이루다 其 그 大 크다
풀이	• 土壤: 한 줌 흙. ▶	
문장	河海는 不擇細流라. 故로 能就其深이라.	河 강 擇 가리다 細 가늘다 故 연고, 까닭 能 능하다 就 이루다 其 그 深 깊다
풀이	• 河海: 큰 강과 바다. • 就=成: 이루다. ▶	

\* 겸손을 미덕으로 삼았던 선인들의 삶을 통해 남을 대할 때 갖추어야 할 태도를 배울 수 있다.

\* 학습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나 느낌은?

\* 학습을 통해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 【어휘 학습】

### (가)

城郭 성곽 ·	• 궁궐을 둘러싼 성벽.
宮城 궁성 ·	• 한창 성하게 일어나 퍼짐.
繁盛 번성 ·	• 상품이나 서비스의 수요가 많은 시기.
盛需期 성수기 ·	• 내성(內城)과 외성(外城)을 통틀어 이르는 말.
廉恥 염치 ·	• 지은 죄나 잘못한 일에 대하여 꾸짖거나 벌하지 아니하고 덮어 줌.
容恕 용서 ·	• 체면을 차릴 줄 알며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

### (나)

隆盛 융성 ·	• 나음과 못함.
縱橫 종횡 ·	• 미덕을 기리고 칭찬함.
優劣 우열 ·	•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
讚頌 찬송 ·	• 세로와 가로를 아울러 이르는 말. 거침없이 마구 오가거나 이리저리 다님.
智慧 지혜 ·	• 주로 기계를 이용하여 더러운 옷이나 피륙 따위를 빠는 일.
眞僞 진위 ·	• 옷칠처럼 검고 광택이 있음. 또는 그런 빛깔.
洗濯 세탁 ·	• 참과 거짓 또는 진짜와 가짜를 통틀어 이르는 말.
漆黑 칠흑 ·	• 천지
接觸 접촉 ·	• 혹은 억누르고 혹은 찬양함.
逮捕 체포 ·	• 사랑과 미움을 아울러 이르는 말.
乾坤 건곤 ·	• 번성함과 쇠퇴함.
榮枯 영고 ·	• 형법에서,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구속을 가하여 행동의 자유를 빼앗는 일.
抑揚 억양 ·	• 서로 맞닿음.
愛憎 애증 ·	• 기운차게 일어나거나 대단히 번성함.

### (다)

憐憫 연민 ·	• 불쌍하고 가련하게 여김.
生涯 생애 ·	• 모자라거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완전하게 함.
補完 보완 ·	• 살아 있는 한평생의 기간.
準備 준비 ·	• 미리 마련하여 갖춤.
衡平 형평 ·	• 균형이 맞음. 또는 그런 상태.
公正 공정 ·	• 공평하고 올바름.

## 【꼭 알아 둡시다】

### ■ 문장의 유형\_평서문

화자가 청자에게 특별히 요구하는 바 없이 하고 싶은 말을 단순하게 전술하는 문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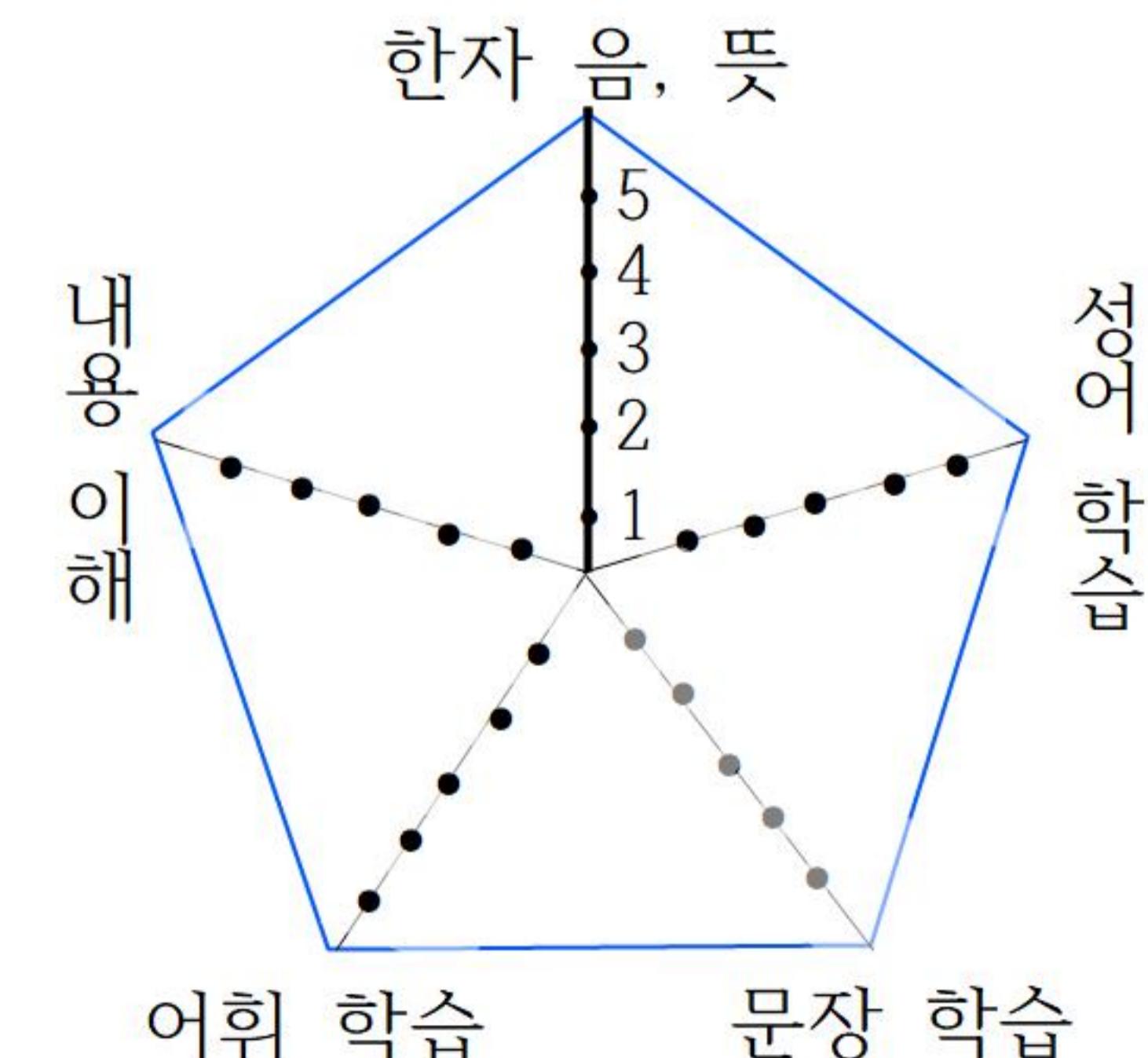
### ■ 사단(四端)과 서경(書經)

- 사단(四端): 인(仁)•의(義)•예(禮)•지(智)의 단서(端緒)가 되는 네 가지 마음. 즉, 인(仁)에서 우러나는 측은지심(惻隱之心), 의(義)에서 우러나는 수오지심(羞惡之心), 예(禮)에서 우러나는 사양지심(辭讓之心), 지(智)에서 우러나는 시비지심(是非之心)의 네 가지를 말함.
- 서경(書經): 유교(儒教) 경전(經典)인 4서(書) 5경(經) 중 하나.
  - 4書: 論語, 孟子, 大學, 中庸
  - 5經: 詩經, 書經, 周易, 禮記, 春秋

### ■ 파렴치(破廉恥)와 간축객서(諫逐客書)

- 파렴치(破廉恥): 자신이 정직하지 않은 행동을 하면서도 부끄러운 줄을 모른다는 뜻이다. 나쁜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이 잘못된 행동이고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 염치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염치를 모르는 사람을 破廉恥(파렴치)한 사람이라고 한다.
- 간축객서(諫逐客書): 진(秦)나라의 치수(治水)사업을 진행하던 중 발생한 간첩 사건으로 인해 외지인 출신 관리들을 모두 진나라 밖으로 추방시키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그래서 초(楚)나라 출신의 이사(李斯) 역시 쫓겨나게 되었다. 이때 이사가 진나라 왕에게 추방 명령을 거두어달라는 내용을 담아 올린 상서(上書) 형식의 산문(散文)이다.

### ※ 나의 학습 성취도 체크하기



13. 마음의 수양	이름: _____ ( )학년 ( )반 ( )번
	날짜: _____ 년 월 일 ~ 월 일

**【본문 학습】**

성어	<b>滅私奉公</b> 멸 사 봉 공	滅 멸하다 私 사욕 奉 받들다 公 공리
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私: 사욕, 개인적 욕심.</li> <li>▶ 사욕을 버리고 공공을 받듦.(→ 개인의 욕심을 버리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힘써 일함.)</li> </ul>	
성어	<b>勸善懲惡</b> 권 선 징 악	勸 권하다 善 착하다 懲 징계하다 惡 악하다
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勸善: 착한 일을 권(勸)함</li> <li>▶</li> </ul>	
성어	<b>改過遷善</b> 고치다	改 고치다 過 잘못 遷 옮기다 善 착하다
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過 : 잘못</li> <li>▶</li> </ul>	
성어	<b>如履薄冰</b> 여 리 박 빙	如 같다 履 밟다 薄 얇다 冰 얼음
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如: ~와 같다.</li> <li>▶</li> </ul>	
문장	禍 <sup>1</sup> 福 <sup>2</sup> 은 無 <sup>4</sup> 門 <sup>3</sup> 이요, 唯 <sup>1</sup> 人 <sup>2</sup> 이 所 <sup>4</sup> 召 <sup>3</sup> 니라. 화복은 무문이요, 유인이 소소를 부른다.	禍 재앙 福 복 門 문 唯 오직 所 것, ~바 召 부르다
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唯: 오직    • 所: ~하는 것</li> <li>▶</li> </ul>	

문장	作事에 切須詳審謹慎하여	작 사 절 수 상 심 근 신 하여	작 짓다. 하다 절 간절하다 상 모름지기 심 자세하다 근 살피다 하 삼가다 여 삼가다
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切須: 반드시</li> <li>謹慎: 삼가고 조심함.</li> </ul> <p>▶</p>		

문장	不可輕率怠緩이니라.	불 가 경 솔 태 완	불 가능하다 가볍다 행동이 가볍다 게으르다 느린다
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不可: ~할 수 없다.</li> <li>輕率: 말이나 행동이 조심성 없이 가벼움.</li> </ul> <p>▶</p>		

문장	積 <sup>2</sup> 善 <sup>1</sup> 之 <sup>3</sup> 家 <sup>4</sup> 는 必 <sup>1</sup> 有 <sup>4</sup> 餘 <sup>2</sup> 慶 <sup>3</sup> 이요, 적 선 지 가 필 유 여 경		적 쌓다 선 ~하는(한) 지 집 가 남다 필 경사 유 재양
문장	積不善之家는 必有餘殃이라. 적 불 선 지 가 필 유 여 앙		
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之: ~하는</li> <li>必: 반드시</li> </ul> <p>▶</p>		

\* 심신 수련을 중시했던 선인들의 삶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유의해야 할 언행과 자세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 학습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나 느낌은?

\* 학습을 통해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 【어휘 학습】

### (가)

僅少 근소 ·	• 얼마 되지 않을 만큼 아주 적음.
謹慎 근신 ·	• 외모가 준수하고 풍채가 당당한 남자.
謀利輩 모리배 ·	• 몸가짐이나 행동을 삼감.
軒軒丈夫 헌현장부 ·	• 둘 이상의 사물을 견주어 서로 간의 유사점, 차이점, 일반 법칙 따위를 고찰하는 일.
比較 비교 ·	• 온갖 수단과 방법으로 자신의 이익만을 꾀하는 사람. 또는 그런 무리.
鶴翼陣 학익진 ·	• 학이 날개를 편 듯이 치는 진. 적을 둘러싸기에 편리한 진형

### (나)

遙遠 요원 ·	• 아득히 멀.
連繫 연계 ·	• 힘을 써 이바지함.
富裕 부유 ·	• 재물이 넉넉함.
貢獻 공헌 ·	• 잇따라 맴. 어떤 일이나 사람과 관련하여 관계를 맺음.

### (다)

實踐 실천 ·	• 생각한 바를 실제로 행함.
遲刻 지각 ·	• 정해진 시각보다 늦게 출근하거나 등교함.
冊床 책상 ·	• 어떤 대상의 둘레.
周邊 주변 ·	• 앉아서 책을 읽거나 글을 쓰거나 사무를 보거나 할 때에 앞에 놓고 쓰는 상.
低鹽食 저염식 ·	• 건강에 유익하도록 조건을 갖추거나 대책을 세우는 일.
衛生 위생 ·	• 속속들이 깨뚫어 미치어 밑바닥까지 빈틈이나 부족함이 없음.
徹底 철저 ·	• 잠자리에 들어 잠을 잡.
就寢 취침 ·	• 잠을 자는 일.
睡眠 수면 ·	• 소금, 특히 나트륨 이온의 섭취량을 제한한 식사.

\* 자신의 하루 또는 주일 단위의 실천 계획서를 한자 단어를 활용하여 작성하여 봅시다.

시간	실천 계획

## 【꼭 알아 둡시다】

### ■ 문장의 유형\_ 평서문

화자가 청자에게 특별히 요구하는 바 없이 하고 싶은 말을 단순하게 전술하는 문장이다.

### ■ 여리박빙(如履薄氷)의 리(履)의 의미

당연히 아슬아슬한 상황을 표현한 것입니다. 리(履)는 ‘신발, 밟다’와 같은 뜻을 갖는데요, 신을 신고 밟는다는 뜻이 전이되어 ‘경험하다, 겪다’라는 뜻도 갖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경력을 상세히 기록한 서류를 이력서(履歷書)라고 합니다.

### ■ 멸사봉공(滅私奉公)의 사례

공과 사의 구분은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회사원이 동호회에 가서 활동하는 것은 회사의 측면에서 보면 개인적인 일, 곧 사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동호회에서 재무를 맡아보면서 회원들의 회비를 개인적으로 썼다면 동호회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그 일을 사적인 일(사적인 유용)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 ※ 나의 학습 성취도 체크하기

